‘도약 이전의 시간’을 그리다
연여인 작가 <Green Room> 10월 24일 개막

용산문화재단과 디아 컨템포러리는 오는 10월 24일 연여인 작가의 <Green Room 그린룸>을 개막한다. 전시는 용산문화재단 복합문화공간에서 11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박찬욱 감독의 영화 포스터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개인전 출품작 모두를 판매하며 주목받은 연여인이 1년 만에 ‘도약 이전의 시간’을 그린 작품으로 돌아온다. 작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 순간을 준비하는 존재들의 모습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따뜻한 긍정의 메시지를 전한다.



연여인, Passage, 2026, 116.8 x 91cm, oil on linen

전시 제목: Green Room by Yeon Yeoin 연여인의 그린룸

참여 작가: 연여인

전시 기간: 2026년 10월 24일(토)–11월 28일(토)

관람 시간: 10:00–18:00 (매주 일요일 휴관)

한남 새터데이즈 특별 운영: 2026년 10월 24일 (토) 10:00–19:00

오프닝 리셉션 : 2026년 10월 24일 (토) 16:00 - 19:00

도슨트 투어 : 2026년 10월 14일 (토) 16:00 - 17:00

전시 장소 : 용산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74 (한남동)

전시 소개

‘용산문화재단과 디아 컨템포러리는 2026년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용산문화재단 복합문화공간 1층 팝업홀에서 연여인 작가의 전시 <Green Room>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약 이전의 시간’을 주제로 제작한 신작 7점과 소장가들로부터 대여한 주요 작품을 포함해 총 14점을 선보인다.

지난해 박찬욱 감독의 영화 포스터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연여인은 서울시립미술관 SeMA 벙커에서 열린 첫 개인전 이후 6년 만에 디아 컨템포러리에서 <The House That My Mother Built>를 선보였다. 전시 출품작 모두가 판매되며 주목받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 순간을 준비하는 존재들의 모습을 그려낸다. 기다림과 반복의 시간을 실패나 정체가 아닌 변화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용산문화재단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긍정의 메시지를 전한다.

도약하기 전, 우리는 어디에 머무는가

‘그린룸(Green Room)’은 영미권에서 배우나 공연자가 무대에 오르기 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다가올 순간을 준비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연여인은 이 공간을 더 나은 존재, 혹은 지금과는 다른 상태로 도약하기 직전의 ‘웅크림’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바라본다.

우리는 빠른 성장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자연스럽게 요구받지만, 실제 변화는 반복과 실패, 기다림처럼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연여인에게 웅크림은 도약하지 못한 실패의 상태가 아니다. 다음 움직임을 위한 힘이 축적되고, 나아갈 방향이 서서히 형성되는 과정이다.

작품 속 존재들은 각자의 차례를 기다리거나 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낮은 숫자만 나오는 보드게임을 계속하고, 무겁고 비린 물고기를 먼 바다까지 옮기며, 나뭇가지를 꺾어 모으는 무의미해 보이는 행위를 이어간다. 당장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이들의 움직임은 정체와 무력함처럼 보이지만, 작가는 그 안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기다림과 반복으로 완성되는 서사

전시의 중심 작품인 〈Green Room〉에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누군가는 잠들어 있고, 누군가는 무료하게 앉아 있으며, 한 인물은 자신의 차례가 된 줄 알고 가방을 든 채 나갈 준비를 한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고, 열쇠는 인물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져 있다. 벽에 걸린 외부 풍경은 문밖의 세계를 향한 이들의 갈망을 보여준다.

〈I keep rolling ones and twos…〉는 세상을 거대한 보드게임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인물은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1과 2라는 낮은 숫자만 얻지만, 그럼에도 게임을 멈추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여정의 중간에는 새로운 감각을 상징하는 눈과 귀, 입 등의 아이템이 등장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괴수를 만나기도 한다.

〈Passage〉와 〈Let’s go〉에서는 개인의 발목을 붙잡는 감정과 삶의 무게가 ‘물고기’로 형상화된다. 인물은 축축하고 무거운 물고기를 산에서 바다까지 옮기는 무모하고 힘겨운 여정을 시작한다. 물고기를 바다에 풀어주는 순간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때를 의미하지만, 목적지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다.

〈Origami (The Meeting 2)〉에서 인물들은 종이를 접는 반복적인 행위를 이어가며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종이는 접히고 펼쳐질 때마다 새로운 형태를 만들지만, 한번 생긴 자국은 사라지지 않는다. 작가는 이를 기억과 경험에 빗대어, 지나온 시간이 사라지는 대신 접히고 겹쳐져 현재의 자신을 이루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2019년 작품 〈The Meeting〉과 2025년 개인전의 주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작가의 시선과 표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과거 작품 속 인물들이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서로 논의하고 있었다면, 신작 속 인물들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가능성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Green Room 그린룸’은 아직 도약하지 못한 존재들의 불완전한 시간을 실패나 결핍이 아닌 변화의 과정으로 바라본다. 웅크림은 멈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세이며, 기다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능동적인 상태다.

전시에 소개되는 〈Don’t be grime, Take your time〉은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때가 있으므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담는다. 아직 날아오르지 못한 인물 역시 자신의 안에 이미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적절한 순간이 오면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긴 여정을 마친 이후의 모습을 그린 〈Nest〉는 이번 전시에서 드물게 ‘과정 중’이 아닌 ‘도달한 이후’를 보여준다. 작품 속 인물은 작은 둥지에서 새와 함께 안락한 시간을 보낸다. 작가는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소박하면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전한다.

이번 전시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다음 순간을 준비하는 존재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와 축적의 시간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작가 소개

연여인(b. 1995)

연여인은 펜과 잉크, 유화와 같은 전통적인 아날로그 매체부터 영상과 디지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한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현실적 환상’이라 정의하며, 삶의 주체로서 세상과 마주하며 겪는 사건과 그로부터 비롯된 다층적인 감정을 중심으로 작업을 전개한다. 기억의 흔적을 매개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놓인 인간 존재를 탐구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모호함과 낯선 감각을 독창적인 이미지와 서사로 풀어낸다.

1995년 서울에서 태어난 연여인은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과 Creative Visual Arts를 복수전공했다. 2019년 서울시립미술관 SeMA 벙커에서 첫 개인전《Engram; 기억흔적》을 개최했으며, 이후 회화와 조소, 영상 미디어를 넘나들며 작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2023년 복합문화공간 DOOR에서《YeonYeoin Ink Collection ‘001030’》을 선보였고, 2025년 디아 컨템포러리에서 개인전《The House That My Mother Built》를 개최했다. 이 전시는 출품작 전 작품이 판매되며 작가의 독창적인 회화 세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구하우스미술관 기획전《작은 거인들—구하우스가 찾은 90년대생》에 참여했으며, 출품작은 미술관 소장품으로 편입되었다. 2026년에는 뮤지엄한미 삼청에서 열린 보그 코리아 창간 30주년 기념전《Vogue into Art》에 참여 작가 가운데 최연소 작가로 이름을 올리며 국내외 주요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용산문화재단 기획전《시차: 지금, 여기》에 이어, 용산문화재단의 초청과 디아 컨템포러리의 협력으로 마련된《Green Room by Yeon Yeoin》에서 신작 7점과 소장가 대여 작품을 포함한 총 1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기다림과 반복, 그리고 ‘도약 이전의 시간’을 통해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탐구하며 작가의 회화적 서사를 한층 확장한다.

잉크와 유화, 디지털 이미지가 결합된 연여인 특유의 감각은 순수미술의 영역을 넘어 대중문화와 상업 프로젝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레드벨벳 ‘Cosmic’ 뮤직비디오의 삽화 및 애니메이션, 젠틀몬스터 HAUS NOWHERE Shenzhen의 미디어 작업 〈recess〉, 박찬욱 감독의 드라마《동조자》한국 포스터, 윤종빈 감독의 드라마《나인 퍼즐》포스터 등에 참여했다. 또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어쩔수가 없다》포스터 작업을 비롯해 여러 브랜드 및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아트 디렉팅, 영상과 뮤직비디오 제작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연여인이 참여한《나인 퍼즐》모션 포스터는 2025 클리오 엔터테인먼트 어워즈(Clio Entertainment Awards)의 텔레비전·스트리밍 부문 Key Art–Motion Poster 카테고리에서 실버 어워드를 수상했다. 순수미술과 대중문화, 아날로그와 디지털 매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연여인은 자신만의 시각 언어를 바탕으로 활동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전시 서문

‘그린룸(Green Room)’은 영미권에서 배우나 공연자가 무대에 오르기 전 대기하고 준비하는 공간을 뜻한다. 연여인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다음 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이 공간에 빗대어 전시의 제목으로 삼았다. 기대와 긴장, 망설임과 결심이 오가는 이곳은 더 나은 존재, 혹은 지금과는 다른 상태로 나아가기 직전의 ‘웅크림’을 상징한다. 이번 전시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듯한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에 주목한다.

연여인은 그동안 집과 방, 숲을 기억과 경험이 담긴 내면의 풍경으로 다루어 왔다. 유년의 기억에서 비롯된 이미지와 익숙한 사물, 인물과 동물은 화면 안에서 낯선 관계를 맺는다.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가 겹쳐지고, 실내와 실외, 현실과 상상의 경계는 느슨해진다. 인물의 몸과 주변 공간 역시 서로 스며들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드러낸다. 이러한 풍경에는 자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묻는 작가의 탐색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에서 그 탐색은 기다림과 반복의 장면으로 이어진다. 화면 속 인물들은 각자의 차례를 기다리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시도를 거듭하며, 자신이 짊어진 무게를 감당한다. 이들의 몸짓에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쉽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함께 담겨 있다. 작가는 노력의 결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 주목한다.

연여인이 말하는 ‘웅크림’은 도약하지 못한 실패의 상태가 아니다. 다음 움직임을 위한 힘이 쌓이고, 나아갈 방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뜻대로 되지 않아 되돌아가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일도 포함된다. 작가는 그 시도들을 성공과 실패로 서둘러 나누지 않는다. 대신 인물들이 무엇을 감당하고 어떻게 행동을 이어 가는지 살피며, 결과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과정의 무게를 드러낸다.

작품에 등장하는 ‘접힘과 펼쳐짐’은 경험이 쌓이는 방식을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준다. 종이를 접으면 보이던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다. 다시 펼쳐도 접힌 자국은 남아 다음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기억과 경험 역시 현재의 감각 안에 흔적을 남긴다. 지나온 시간은 새로운 경험과 겹쳐지며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는 방식에 관여한다. 연여인의 회화에서 변화는 이미 새겨진 흔적을 지닌 채 또 다른 모습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인물들을 둘러싼 공간에는 상반된 감정이 공존한다. 방과 숲은 몸을 보호하는 은신처이면서 바깥을 향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경계가 되기도 한다. 편안해 보이는 장소에 분절된 신체가 놓이고, 상처 입은 인물은 평온한 표정을 짓는다. 닫힌 문과 출구 표지, 숲 사이의 틈은 머무를 곳과 나아갈 방향을 함께 의식하게 한다. 익숙한 곳에 남고 싶은 마음과 그곳을 벗어나려는 마음 사이에서 인물들은 망설인다. 대기실이라는 공간에도 이러한 안정감과 긴장이 함께 담겨 있다.

지금과 다른 상태로 나아가려는 마음은 ‘어떤 삶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화면에 등장하는 안락한 거처와 일상의 사물들은 긴 여정 끝에 머물고 싶은 자리를 떠올리게 한다. 더 멀리 나아가는 것만큼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일도 중요하다. 도약의 방향은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바라는 삶의 모습에 따라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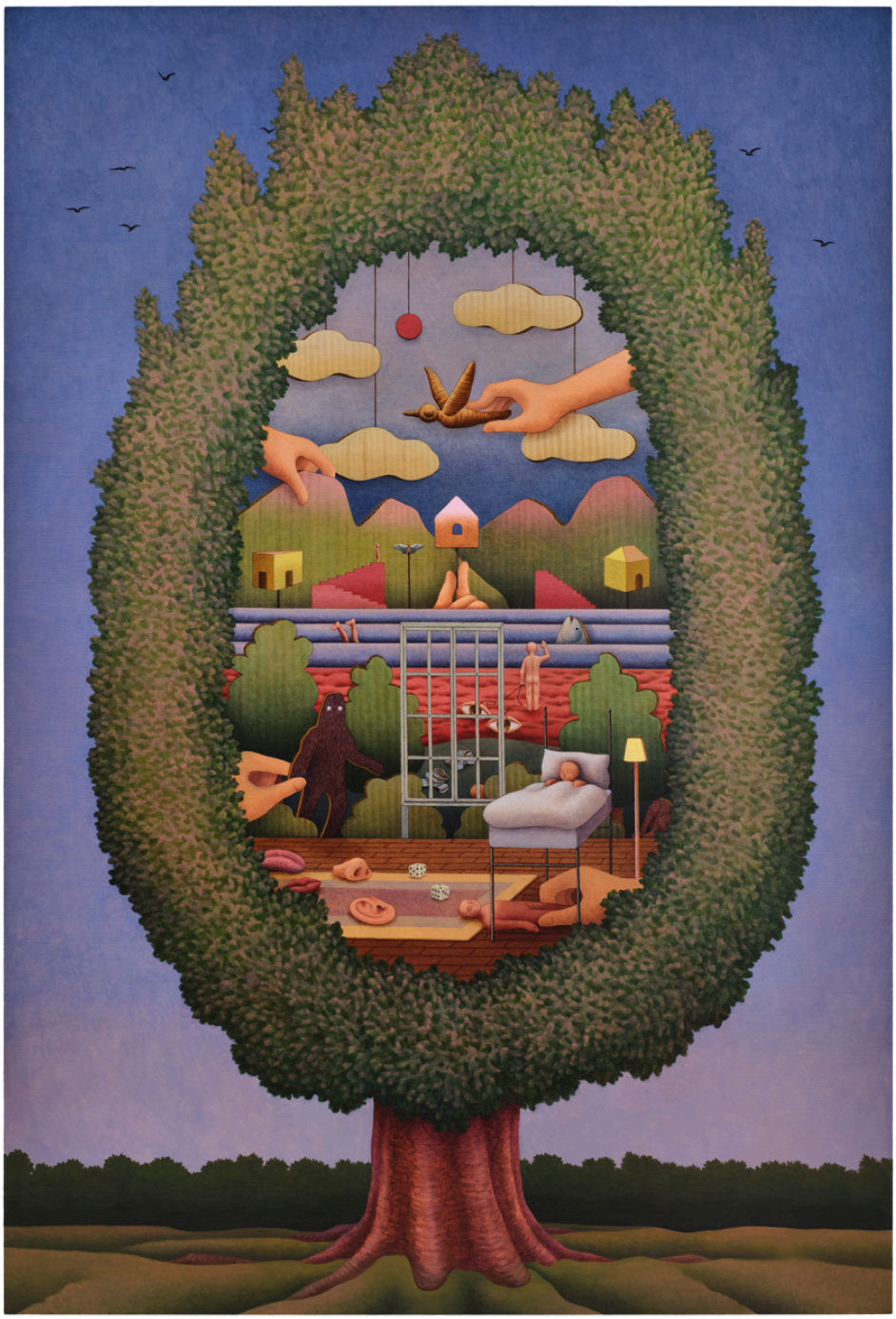
용산문화재단과 디아 컨템포러리의 협력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연여인이 구축해 온 회화 세계에서 ‘도약 이전의 시간’이 어떻게 이어지고 변주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빠른 성장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요구하는 현실 속에서, 쉽게 정체로 여겨지는 반복과 기다림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이 작품 속 인물들의 서툰 몸짓과 망설임에 자신의 시간을 비추어 보고, 저마다의 속도로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다린다는 것은 멈추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연여인은 아직 결과를 말하기 어려운 순간에 시선을 머물게 한다. 작가가 발견하는 ‘웅크림’의 아름다움은, 그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다음을 만들어 가는 존재들의 모습에 있다.





Yeon Yeoin 연여인
Green room
2026
Oil on Linen
150x130cm



Yeon Yeoin 연여인
I keep rolling ones and twos..,
2026
Oil on Linen
165x112cm





Yeon Yeoin 연여인
Forager I (채집자 I)
2026
Oil on linen
90.9 x 72.7cm



Yeon Yeoin 연여인
Forager II (채집자 II)
2026
Oil on linen
90.9 x 72.7cm


2026.10.24 — 2026.11.28
Green Room
by YEON YEOIN
주최 주관 | 용산문화재단 디아컨템포러리
장소 | 용산문화재단 1층 팝업홀
후원 | 제너럴밀스코리아(주)
Häagen-Dazs
NATURE VALLEY

전시 문의

[담당자]
조수정 | info@diacontemporary.com | 010-9858-4784

[작품이미지 및 전시 전경]
전시의 모든 출품작은 구글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주소를 첨부해 드립니다.

구글드라이브
https://drive.google.com/drive/u/0/folders/1V0nzoyPy1EmEYt6qL17uZ9YeD9scNZP-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갤러리와 작가에게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 사용 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요청드립니다.
© Artist and DIA Contemporary

[디아 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
04420 용산구 한남대로 10길 12
www.diacontemporary.com | info@diacontemporary.com | +82 2 2235 2822

Discover Inspiring Artistry 디아컨템포러리



DISCOVER INSPIRING ARTISTRY (DIA)는 동시대 미술을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감각과 사유, 물질과 맥락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싱가포르와 서울을 기반으로 축적해 온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DIA는 동시대 예술의 다층적인 흐름을 탐색하며 작가와 작품, 공간과 담론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DIA(디아)는 그간 정교하게 기획된 전시와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확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왔으며, 국내외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하고 그 예술적 잠재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축적을 기반으로, 2024년 서울 삼청동에서 첫 문을 연 DIA는 이후 한남동의 확장된 공간으로 거점을 옮기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고, 보다 넓은 시야로 동시대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전시를 전개하고 있다.

DIA(디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작품 소개를 넘어, 각 작업이 지닌 조형적 언어와 개념적 깊이, 그리고 그것이 동시대와 맺는 관계를 함께 드러내는 일이다. 회화, 조각, 설치,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예술의 실험성과 미학적 밀도, 물질성과 사유의 층위가 살아 있는 전시를 통해 동시대 미술에 대한 보다 확장된 감각을 제안한다.
동시에 DIA(디아)는 일시적인 흐름이나 협소한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고유한 시각과 태도를 지닌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이들이 보다 넓은 국제적 문맥 안에서 읽히고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예술이 예상 가능한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발견과 질문,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DIA(디아)는 전시 공간 이상의 역할을 지향한다. 작가의 비전과 관객의 경험, 그리고 동시대 담론이 유기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설계함으로써, 예술이 보다 밀도 있게 경험되고 오래 사유될 수 있는 장을 구축하고자 한다. DISCOVER INSPIRING ARTISTRY라는 이름은 곧 이러한 방향성을 함축한다. 예술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발견이 다시 감각과 사고를 자극하며, 궁극적으로 동시대의 예술적 실천을 더욱 풍부하게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DIA(디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다.